

담배 연기 사라지니 “好好” 아파트 웃음꽃 활짝

광주 유일 금연아파트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3차 가보니

계단·복도 등 4곳서 흡연 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 인식 바뀌고 민원 줄어...베란다 등 제외 아쉬움도

“담배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뒤 공기가 한층 맑아졌어요.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금연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광주 유일의 금연아파트인 남구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3차’에 사는 주부 이모(54)씨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고스란히 마실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아파트 자랑을 늘어놨다.

이 아파트관리소장인 손영숙(50)씨도 “예전에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많았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나서 크게 줄어 들었다. 금연에 대해 주민인식이 바뀌었다”며 변화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문의전화와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3차는 지난해 10월7일 광주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4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의 간헐 공간이 금연구역이다.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쉽지 않다. 전체 주민 절반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6개동 279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금연아파트 지정 찬반 투표를 거쳐 67.8%(188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신청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아텔리움 3차’를 광주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고, 아파트 출입구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



구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딱히 설치했다.

손 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실제 금연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표지판을 본 흡연자들은 아파트 밖으로 나간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쉬움도 있다. 금연아파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외에 베란다·화장실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놀이터가 금

연구역에서 빠져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흡연은 개인의 기호인데, 흡연자들을 너무 내몰고 있다”며 “흡연자의 고충을 배려해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담양군 백동리 별해리아파트가 지난해 10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글·사진=전문재기자 ej6621@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9일 오후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부역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9일 진도 팽목항과 광주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관련기사 22면〉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0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과 남구촛불모임은 이날 노란 풍선을 들고 ‘1000일 순례’에 나섰다. 100여일전부터 매일 2시간씩 푸른길공원 일대를 걸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해 온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5·18 민주광장

세월호  1000일

팽목항·광주 곳곳 추모행사 열려
노란풍선 들고 1000일 순례 나서

9개 연 날리며 인양 기원도

에서 산수오거리·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까지 걸으며 순례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는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유가족인 단원과 박흥래학생의 어머니 김혜경씨의 5분 발언과 다양한 공연 등이 이어

졌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1000일 추모문화제’가 개최됐다. ‘천의 춤·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 문화제에선 전연순 춤꾼의 ‘천일의 춤’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사진 행사무대에서는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엄불 기원제’가 열렸다. 이어진 2부 무대에서는 미수습

자 9명을 상징하는 9개의 노란 연을 날리는 ‘기다림의 연’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1000일 행사 이후에도 추모 분위기는 계속돼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이야기 마당이 마련된다. 오는 12일 오후 7시 목포 세한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세월호 1000일의 기다림 잊지 않기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초대 손님으로 나선다.

이어 14일 오후 2시 광주 YMCA회관 무진관에서는 ‘개혁신명 촉구 광주촛불 릴레이토크’가 열린다. 유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세월호 특별법 제언’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불법 입국 취업 중국인 잇따라 적발

국내로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무사증(무비자) 입국 후 불법 취업활동을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각각 2014년 8월과 2015년 초 무사증으로 제주공항에 입국한 뒤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 경기 포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부터 수수료로 주고 국내에 들어온 뒤 중국 조직과 연계된 국내 밀입국 알선책을 통해 육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과 취업을 도운 국내 브로커 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도 이날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B(27)씨, C(36)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에 목포신항만 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해 경기 오산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C씨는 이 과정에서 밀입국을 모의하고 일지리를 알선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광주·목포출입국관리소와 합동으로 목포신항만 CC-TV를 분석하고, 도주한 B씨가 이용했던 택시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8일 오후 1시 10분께 경기 오산에서 B씨를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왕씨의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알선책을 상대로 역추적을 통해 추가 밀입국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화문 분신 정원 스님 끝내 숨져

비대위 “시민들과 연대 투쟁”

지난 주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분신한 정원스님(서모씨·64)이 이틀만인 9일 저녁 숨졌다.

9일 정원스님 분신행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원스님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원스님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끝난 오후 10시30분께 종로구 경복궁 앞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몸매 휘발성 액체를 끼얹

고 스스로 불을 붙여 분신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위독한 상태였다.

정원스님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된 분신행거 비상대책위원회가 스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이 몸담고 있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중심으로 꾸려진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및 시민들과 연대해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술취해 아파트 경비원 폭행

완도경찰, 7급 공무원 입건

완도경찰청은 9일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7급 공무원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20분께 완도군 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A(68)씨를 손·발로 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씨 등 경비원 2명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특히 지난 6일에는 A씨에게 ‘팔바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재벌 아들 빙자 여성에 접근 역대 뜯어낸 20대 ‘쇠고랑’

성다발

○…외제 렌터카를 몰며 20대 여성들에게 접근, “내가 재벌 아들”이라고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역대의 현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쇠고랑 신세.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죄로 3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2014년 10월 바깥세상에 나온 A(29)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B(여·22)씨 등 20대 초반 여성 2명과 사귀면서 “결혼하

자”, “아버지 도움없이 회사를 키우고 싶다”고 꼬드긴 후 무려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결혼을 빙자한 A씨의 사기 행각은 뜻하지 않게 그가 지난 3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들에게 “너희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행거러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10여건의 사기 사건도 함께 들통.

/김현호기자 kh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은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